

# 광주시 “HDC현산 모든 건축·건설 공사 중지”

지역 이모저모

계림동 아이파크 등 건립 중 화정아이파크, 철거 여부 관심 집단 소송 등 거센 후폭풍 예고



12일 오전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에서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운데)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지역에서 진행중인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이튿날인 12일 오전 8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인 이용섭 시장 주재로 사고현장에서 관할 구청과 소방·경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인 곳은 화정동 아이파크 1블럭(316세대, 2022년 10월 입주)과 화정동 아이파크 2블럭(389세대, 2022년 10월 입주), 계림동 아이파크 SK뷰(1750세대, 2022년 7월 입주) 등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이다.

이번 건물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물 철거여부와 집단소송, 검·경 수사, 대규모 입주 차질 등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는 아파트 자체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우선적으로 철거 여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찌감치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제2의 학동 참사”라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고난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면 올해 안에 신축공사 재개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 소송전도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 귀책사유가 분명한 만큼 수반양자들의 입주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월이나 11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집단대응이 예상된다.

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참사 이후 불과 7개월여 만에 또다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와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엄

정하게 물어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돼 이 법에 따른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키로 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행정 공무원들의 해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키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특히 현재 연락두절된 현장근로자 6명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 서구청에 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설치, 서대석 서구청장이 본부장을 맡아 신속하게 조치 중이다.

아울러 광주시에 건축건설현장 사고방지대책본부를 구성, 시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광주 시내 모든 건축건설 현장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진주시, 2021년 대외기관 평가 ‘우수’

37개 부문서 기관 표창

진주시는 2021년 한 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경남도 등 각종 대외 기관 평가에서 37개 부문에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어 우수한 행정력을 입증했다.

주관별 수상 내용은 중앙부처 13건, 경상남도 15건, 외부기관 9건으로 시정업무 37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3억2300만 원의 시상금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에서 전국 중소도시 중 1위로 2021년 대한민국도시대상 최우수 기관상 수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화 우수단체 2년 연속 수상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치매극복의 날 우수 기관상 등 13개 부문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경남도 평가에서도 ▲도시 숲 조성과 녹지관리 운영 우수로 제 21회 푸른 경남상 수상 ▲지방세 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 ▲농수산물 수출 우수 ▲산림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분야 우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가족방역 특별평가 우수 ▲도로 정비업무 최우수 기관 등 1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 울산시 아동 양육부담 경감에 1018억 투입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진행

울산시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비는 올해 총 1018억 원이 투입된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위한 실질적인 양육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확대되는 국가예산 보조 주요

사업은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다.

울산시 자체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출산 지원금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총 1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해 200만 원(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한다.

지급된 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행업종·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울산=정병호 기자 metrobusan1@

## 광주시, 자치분권 확대 오늘부터 전면 시행

32년 만에 전부 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광주광역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

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한다.

또한,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의 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 남해군, 대구 수정란 방류 추진

남해군은 겨울철 대표 어종인 대구 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정란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성숙한 대구 친어를 구입하여 채란 및 인공수정시켜 삼동면 물건·은점해역에 수정란 5억 개를 방류할 계획이다.

회귀성 어종인 대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 마리 가격이 20~30만원 정도에 거래될 정도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구례군, 농업창업 교육생 모집

전남 구례군은 오는 28일까지 2022년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체류공간과 영농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모집 공고일 이전 도시지역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2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전남)=심인주 기자 6007sim@

## 나주 시골마을에 쌍둥이 탄생 출산 축하금 500만원 지원

쌍둥이 울음소리에 나주시 시골마을 경사났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동강면 진천1리 이모 씨(55세) 가정에서 지난 해 12월 30일 아들과 딸,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20년 7월 첫째아 출산을 통해 수년째 아기 울음소리가 끊겼던 동강면 지역에 큰 감동을 선사했던 주인공이라 감격을 더하고 있다.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이 씨 가정에는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나주(전남)=김태수 기자

## ‘천년의 맛과 멋, 전남’ 관광슬로건 선정

전남도, 공식 BI 제작



전라남도는 어려운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홍보마케팅에 활용할 전남관광 슬로건으로 ‘천년의 맛과 멋, 전남’을 선정해 공식 BI(Brand Identity·사진)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전남도는 전남 관광의 특색인 ‘맛 있는 음식, 생태의 보고, 풍류와 멋·정감 넘치는 전남’을 잘 표현한 슬로건

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모에 나섰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 및 디자인 개발 절차를 거쳐 2321명이 참가한 선호도 조사로 ‘천년의 맛과 멋, 전남’ 슬로건을 확정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